

请不要推开救援的手

文/圆容

朋友，迷中的朋友！
 你可曾意识到，
 自己正在茫茫苦海里飘游？
 大法弟子像一叶小舟，
 驶向你身旁对你施救，
 得到真相是缘，
 明白真相是福，
 请不要推开救援的手！

朋友，久违的朋友！
 你是否察觉到，
 自己还在重重危难中逗留？
 大法弟子是神的使者，
 为让你脱险给你指路，
 抹去邪恶的兽印，
 甩掉红魔的惑诱，
 请不要推开救援的手！

朋友，明智的朋友！
 你一定感悟到，
 如今已到当机立断的时候。
 选择未来对自己负责，
 万古机缘别擦肩而过
 务必要未雨绸缪，
 盼你能尽快得救，
 愿你牵住这慈悲的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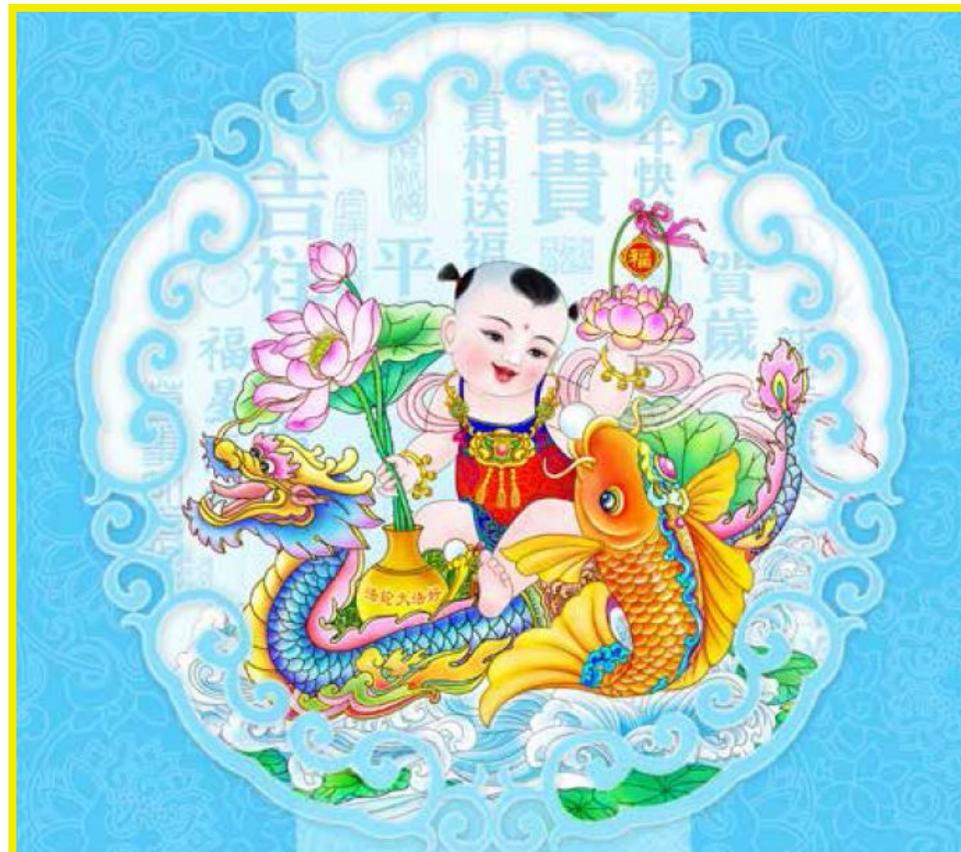
· 明慧期刊 自费印制 珍惜传阅 ·



天 賜 洪 福

격월간 제 109 기

하늘이 내린 홍복



명혜 정기 간행물

명혜망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MINGHUI.ORG

- 어진 아내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온 가족 덕을 보다
- 석달에 완쾌된 엄중한 뇌혈전
- 특대 탄광 사고, 20여명 구원되다
- 우박이 지나간 후 손해받지 않은 논밭

있고 까무러쳤다. 이로부터 사람을 만나면 때리고 사람을 만나면 욕했는데 후에 정신병원에 데려갔다.

뤄귀위의 누나 **뤄국평(罗国平)**도 동생, 동서들의 “공작(工作)”을 지지하였다. 한번은 그녀가 밭에가서 포도 가지를 묶다가 가지에 눈이 튕겼는데 이만여원을 썼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눈이 멀었다.

속담에 “적선(积善)한 집안은 후에 반드시 경복이 남아 있고, 적선하지 않은 집안은 후에 반드시 재앙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한사람이 악한 짓을 하면 한사람이 덕을 잃고 악보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자손에게 영향주고 가족에게 미칠 것이다.

중공을 바짝 따라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람은 나쁜 놈의 앞잡이가 될 수 있고, 마음이 독하고 하는 것이 악랄할 수 있으며; 죄명을 꾸며내고, 선량한 사람을 모함할 수 있으며; 한때 행패를 부리고 한바탕 위풍을 부릴 수 있으나 최종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비참한 결말 뿐만 아니라 또 자손, 친인에게 미친다. 참으로 한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온가족이 재앙을 입는다.

아직도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람에게 충고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세요. 화위판, 귀위의 가족 비극이 자신의 비극이 되지 않게 하세요. 박해에 참여하지 않으면 친인을 위협한 지경에 끌어들이지 않을 것이고 가족을 쇠패 전멸하지 않을 것이며 자손으로 하여금 심각한 업의 빚을 지게 하지 않을 것이요. 시비를 분명히 가리고 불법을 적대시하지 않고 파룬궁 수련자를 좋게 대하면 곧 하늘의 인정을 받게 되고 곧 복보가 끊임없을 것이요. ◇



■ 2016년 5월 14일,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제지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온 파룬궁 수련생 뉴욕에서 시위행진을 하고 있다.

서두 일문



선님이 나온 것과 선행을 한 복보

이것은 청나라 광서년간에 발생한 이야기이다.

강소의 가(賈)선생은 상해 조계(租界)의 한 외국인 상사(商行)에서 일을 하면서 사장의 깊은 신임을 받았다. 단오절 전 사장은 그를 빗 받으러 성남 일대에 파견하였고 그는 가족 주머니를 갖고 출발했다.

일의 진전이 비교적 순리로왔기에 점심까지 모두 은전 천팔백여원을 받았다. 가선생은 만나질 걸으면서 만나질 말하다보니 입은 언녕 바짝 말랐고 견딜 수 없이 피곤했다. 마침 “16가게” 찻집에 오자 들어가서 총망히 차를 조금 마시고는 바로 서두르며 돌아가 결과를 보고하고 폭 쉬려고 하였다.

상사에 돌아 온 후에야 가족 주머니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가선생은 갑자기 벼락맞은 듯이 땀투성이 되고, 놀라 멍했고, 당황중 더욱 더 멍백히 말할 수 없었다. 사장은 당황한 기색에 혀가 굳어 조리 없이 말을 하는 그를 보고 그중에 속임수가 있다고 여겼다. 하여 주인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엄하게 질책하면서 만약 빨리 돌려주지 않으면 그를 관청에 넘

기겠다고 말했다.

그 때 천팔백 더 되는 은전이란 정말 거금이였다. 만약 마구 써버리지 않으면 한사람이 평생을 써도 충족하였는데 가선생이 어찌 배상할 수 있단 말인가? 책임은 크지만 입이 있어도 변명할 길이 없는 가선생은 이 한평생 끝장이란 생각으로 절망에 빠져 통곡하기 시작했다.

돌아와 다시 말하자면 또 한명의 성이 의(義)씨인 포동 사람도 조계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운이 좋지 않아 몽땅 밀지여 그날 점심 배표를 사고 강을 건너 고향에 돌아가려 했다. 배가 떠날 시간이 아직 이르므로 역시 “16 가게” 찻집에 와 차를 천천히 마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이후의 생활은 어찌할지를 잘 고려하려 했다.

마침 가선생이 방금 총총히 떠나 갔을 때 바로 이선생이 도착했다. 이선생은 앉자마자 신변의 의자에 가죽 주머니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그다지 거들떠보지 않고 천천히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여전히 가져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자 의심이 생긴 이선생이 들어보았더니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열어보자마자 그는 놀라서 하마트면 눈알이 떨어져 나올번 했다: 뜻밖게도 전부 번쩍번쩍 빛나는 은전이였다!

이선생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엉켰다! 이는 참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큰 떡, 큰 재물이다. 그것은 자신의 현재 빈털터리의 상태를 개변할 수 있을뿐더러 후반생의 의식도 여유가 있게 된다. 하지만 그는 또 다시 생각해보았다: 안된다, 재물은 각기 그것의 주인이 있으므로 이 돈은 내가 가질 수 없다! 만약 내가 돈을 가져간다면 이로 인해 분실자가 명예를 상실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게되면 나의 죄업은 커질 것이다! 이선생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나더러 이 재물을 훔게한 이상 나는 마땅히 책임을 다하여 물건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점심밥을 먹을 때가 되자 찻집의 손님은 8~9명만 남았다. 그들의 표정을 보니 어느 누구도 돈을 잃은 것 같지 않았고 이선생은 배를 굶주리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줄곧 등불이 켜질 무렵까지 기다렸고 찻집 손님은 모두 집에 돌아가고 이선생 한사람만 남았다. 그는 여전히 정신을 가다듬고 오가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안색이 창백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여기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온 사람은 바로 가선생이고 뒤에 또 두 사람이 따르고 있

고 중공의 표창과 장려를 받고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하여 벼락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불법을 모독하고 수련인을 압박한 후 좋은 운이 따른 것이 아니라 악보가 련이었다.

화위팡(华玉芳), 산둥 청도 지모시 화산진 룡하장촌 서기이다. 그는 파룬궁을 적대시하고 악독하게 파룬궁 수련생을 공격하였으며 사람을 파견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감금하고 감시하였으며 미친듯이 큰 소리로 아우성쳤었다: “파룬궁을 련마하는 사람은 응당 집과 가족을 잃어야 한다!” 화위팡은 퇴직 후 서기직을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2014년 화위팡의 아들은 기생과 놀 때 약물을 과량 복용하여 죽었다. 그의 아들이 죽은 후 반년이 되어 아내는 타격을 못이겨 심장병이 발작하여 죽었다. 2013년 화위팡의 양자는 도박에서 돈을 잃고 방에 들어가 강탈하며 사람을 죽인 탓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지금 화위팡은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죽었을뿐더러 자신도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

귀위(郭喻), 사천성 미산시 단릉현 “610” 관공실 주임, 전문 파룬궁 박해를 관할하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쇠뇌반을 꾸리고, 랍치하고, 강제 전화(转化), 벌금, 불법 판결을 하며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을 다 했다.

2012년 7월 단릉 법원은 불법으로 두명의 파룬궁 수련생 리하이핑(李海平)과 량웨이전(梁月珍)을 중형에 처했고; 8월 귀위의 남편 뤼귀위(罗国伟)는 곧 차 사고를 당했다. 그가 운전한 승용차는 날아올라 네 바퀴가 하늘을 향해 떨어졌다. 사람은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 죽어 직접 화장터로 갔다. 듣는 말에 의하면 가족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죽은 모습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이다.

뤼귀위의 큰 형 뤼귀휘(罗国辉)는 대대 비서, 회계인데 파룬궁을 박해할 때 사람을 붙잡든 아니면 저녁에 순라를 하든 그는 모두 아주 적극적이었다. 2014년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수술 후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졌는데 머리와 얼굴이 크게 부어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뤼귀휘의 작은 아들은 중등학교를 방금 졸업하였다. 어느날 집에서 갑자기 그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리수룽(李淑容), 리수룽, 어르신이 너를 죽이겠다, 어르신이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그의 형을 때려 의식을

이런 자격시험이 미치는 전업 지식과 지식면은 더욱 넓고 더욱 깊고 계산량이 몹시 컸다. 당시 우리 도시에서 백여명이 성도에 가서 시험에 참가했다. 어떤 사람은 첫과목 시험을 끝마치고는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으며 계산량이 너무 크므로 전부 답안을 다 작성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번 등록시험에 나는 또 1차적으로 통과했다. 나는 나의 지혜는 파룬파 과정에서 왔고 자비스럽고 위대하신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이나에게 지혜를 열어주었음을 깊이 깨달았다. ◇

악보는 원인이 있다

불기는 인과를 말하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자작자수(自作自受)는 한조목 인과의 철석같은 법칙이다. 그럼 왜 자신이 나쁜 짓을 하면 화근이 자손과 친인에게도 미칠 수 있는가? 이는 친인과 자손이 모두 부모, 형의 은택을 받았었기 때문에 바로 그를 대신해 업적을 감당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인과 법칙 역시 합리적인 것이다. 한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우선 그 자신의 복분에서 빼내고 관록에서 깎으며 수명에서 감소시킨다. 만약 한사람이 한 나쁜 일이 너무 크면 인간에는 부친의 빛은 자식이 갚는다는 리치가 있기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은 죄업이 또 그의 친인 몸에 떨어지고 친인의 복록수(福祿壽)에서 감소시킬 것이다. 이것은 바로 속담에 말하는 — 멀리는 아들 손자에게 보충하고 가까이로는 자신에게 보충한다 이다.

악을 행한자는 자손 친인에게 화근을 남긴다

문/대륙 파룬궁 수련생

【명혜망】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일부 사람은 중공 정책을 따라 적극적으로 박해 운동속에 참여하여 중공의 대변인과 줄게가 되었다. 그들은 중공이 그들의 뒷바침되어주면 파룬궁 박해를 통해 령도의 눈에 들

었다. 찾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선생은 이 차 테이블을 가리키며 그 두 사람과 말했다: “바로 저기예요, 당시 나는 바로 저기에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은 곧바로 이선생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그들이 분실자인 것을 알아차린 이선생은 웃으면서 가선생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돈 주머니를 떨구었나요?” 가선생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며 줄곧 머리를 끄덕였다. “내가 당신들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선생은 말하면서 그 가죽 주머니를 꺼내 그들에게 보였다. 감격된 가선생은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당신은 참으로 나의 생명을 구해준 큰 은인이예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오늘 저녁 목매어 죽었을 거예요!”

원래 가선생은 돈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 돌아가 길을 따라 한번 찾아보려 하였다. 비록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은 묘망하지만 오직 이 길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가 몰래 도망가는 것이 두려운 주인은 그가 문을 나서지 못하게 하였다. 그가 반나절 입이 닳도록 말해서야 주인은 비로서 두 사람을 불러 그를 동반하여 찾게 하였으며 또 그를 동반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를 데리고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두 사람이 서로 이름을 알린 후 가선생은 돈 주머니속 은전의 5분의 1로 사례하려 하였으나 이선생은 견결히 가지지 않았고; 또 바꾸어 10분의 1로 하였으나 이선생은 여전히 가지지 않았으며 재차 다시 백분의 1로 하자 이선생은 성을 내면서 심한 말로 거절했다. 가선생은 어떻게 사례하면 좋을지 몰라 말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술을 대접하면 어때요?” 이선생은 여전히 견결히 사양했다. 마지막에 가선생은 말했다: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어요! 래일 아침 소인이 모모 술집에서 기다리겠으니 은인께서 왕림하시기를 간청하오니 만날 때까지 떠나지 않겠어요.” 말하고 나서 읊하고는 머리를 돌리고 가 버렸다.

이튿날 아침 이선생은 뜻밖에 왔다. 가선생이 한창 절을 하여 다시 감사 드리려 하는데 오히려 이선생이 앞 다투어 감사 드리면서 말했다: “당신이 어제 돈을 잃어버린 덕분에 나의 목숨을 살려주었어요!” 가선생은 도무지 영문을 몰라 막 상세히 물으려고 하는데 이선생이 이어서 말했다: 나는 어제 원래 강을 건너 고향에 돌아가려고 이미 점심 1시

의 배표를 샀는데 당신이 돈 주머니를 가지러 오기를 기다리느라 배를 놓쳤어요, 거처에 돌아가 알게 되었어요. 그 배는 항행하던 도중에 급한 파도에 뒤집혔고, 배에 있던 스물세 사람은 전부 물에 빠져 죽었대요. 만약 내가 그 배를 탔다면 일순간 역시 황천길로 가버리지 않았을가요? 당신이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요!” 말하고 나서 다시 절을 했다. 두 사람은 호상 감격했고, 주위의 손님들은 듣고서 모두 기묘함에 탐복하며 칭찬했고, 분분히 잔을 들어 그 두사람을 축하하면서 이선생의 한 가지 선행이 두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가선생 세 사람이 돌아가서 사실을 말하자 매우 놀란 사장도 감개무량하여: “이렇게도 좋은 사람은 참으로 찾기 힘드네요!” 라고 말하면서 기어코 이선생을 만나 뵈려 했으며 우여곡절을 겪고 최종 이선생을 만났고, 두 사람은 만난 후 아주 마음이 맞았으며 긴 이야기를 나눈 후 사장은 극력히 이선생을 만류함과 아울러 높은 로임으로 그가 주로 장부를 관리하도록 초빙하였다. 몇달 후 사장은 이선생을 데릴사위로 받아들였다. 더 이후로는 아예 장사를 전부 그에게 맡겨 관리하였다.

빈털터리던 이선생이 재물을 주워도 탐내지 않는 이야기는 아주 빨리 널리 퍼졌다. 그의 성신, 인의는 사람들의 찬탄을 얻었고 크고 작은 구매자들은 모두 분분히 찾아와 그와 장사를 하였으며 그의 집 장사는 갈수록 커져 당지의 대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선념과 선행의 복보이다. 자고이래 하늘은 선한 사람을 보우하였고 오늘도 이러하다. ◇



한동안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나의 대뇌 지혜를 열어 주고 건축 시공지의 스승이 나에게 좀 가르친 후, 내가 사무실에 돌아가 도면을 자세히 보고 자료를 찾기만 하면 곧 그중의 도리를 알았을뿐더러 하나를 보고 열을 알았고 일년 후 바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당시 그 도시의 건축 공지는 방금 감리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나는 하나의 안정된 직업이 있기 위해 감리 공정사 시험을 치려 했다.

내가 국가등록 감리 공정사 시험에 응시한 후 집사람이 붙여온 참고서를 받았을 때는 시험 시간까지 석달밖에 없었고 책을 첫번째 볼 땐 구름 속에 가친 듯한 느낌이였다. 이제서야 공지에서 배운 고만한 것은 구우 일모(九牛一毛)일 뿐이란 것을 알았다.

당시 낮엔 나는 공지에서 일해야 했고 오직 한가할 때에야 비로서 서둘러 책을 보았다. 세멘트 반죽기는 바로 나의 사무실 옆에 있었는데 떠들기도 하고 먼지천지이기도 했다. 석달에 나는 책을 세번 봤다. 5월에 성도에 가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친 후 조금도 자신이 없었다. 8월에 성적이 나오자 집사람은 나에게 단번에 통과했다고 알려주었는데 나도 믿기지가 않았다. 본시 나와 함께 시험에 참가한 일 부수험생들도 내가 단번에 통과하리라 믿지 않았다. 그들은 정규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줄곧 이 항업에 종사했고 대부분 사람은 모두 몇천원을 쓰면서 시험 전 훈련에 참가했다. 그해 본성 통과률은 10%를 초과하지 않았고 그들이 모두 내가 총명하다고 칭찬할 때 오직 나 자신만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다. 만약 파룬따파 사부님이 나에게 지혜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찌 되었든 첫번에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년 후 나는 또 국가등록 공정사 시험에 참가했다. 이번 시험의 준비작업은 먼저번과 달리 나 혼자 낮에 출근해야 할뿐더러 어떤 때엔 저녁에도 밤새 야근을 해야 했고 다만 사무실의 환경이 많이 조용해졌을 뿐이다.



각종 종교, 각종 학설과 기공중에서 알려고 하였으나 그 해답을 얻을 수 없었던 의문을 해답했고 나더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했으며 나는 당시에 곧 나 이후의 생명이 의미가 있음을 알았다. 후에 나는 또 파룬궁 주요 저작 《전법륜(转法轮)》을 얻었다. 수련 후 사부님께서서는 짧디 짧은 한달내에 나에게 신체를 정화해 주셨다.

대학에 있는 기간 나는 이렇게도 진귀한 파룬따파를 대학교 사생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강렬했다. 《전법륜(转法轮)》을 방금 보고나서 나는 곧 소개편지 한통을 써서 《전법륜(转法轮)》과 함께 대학의 공회주석에게 바쳤다. 허나 공회주석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졸업 후 비록 당시 나는 아직은 스스로 수련했고 파룬따파에 대한 이해도 아주 천박했으며 련공 동작도 그다지 규범적이지 아니었지만 나는 그냥 이 위대한 파룬따파를 이 도시의 매개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대형 공장 광산 공회주석 하나 하나를 찾아 직원을 조직하여 내가 파룬따파를 소개하는 것을 듣게 하였고 무료로 공을 가르치는 포스터를 일부 주택 단지에 붙였다. 후에 외지 파룬궁 수련생의 도움하에 우리 시의 첫번째 련공점은 한 대형 공장 광산에 설립되었다. 파룬따파는 내가 일하는 이 도시에서 아주 빨리 널리 전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단지 한방울의 땀을 지불했지만 사부님은 도리어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배수의 장려를 주었다. 나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지력이 반에서 손꼽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강제 기억력은 더욱 안됐다. 지식에 대한 깨달음은 항상 한층의 얇은 면사를 사이둔 것 같았고 어릴적부터 또 시험을 두려워하여 평소에 풀 수 있던 문제도 시험장에 가기만 하면 곧 풀지 못했다. 그러므로 대학시험 전 실면으로 대학시험을 잘 치지 못하여 자신의 리상적인 학교와 전업에 붙지 못했다.

1999년 7월 중공 장쩌민(江泽民)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 나는 할수 없이 내가 일하던 도시를 떠나 외지에 가서 생계를 도모했다. 나는 한 건축공지에 소개받아 시공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는 내가 배운 전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령역이었다. 나를 가르치는 스승은 몇십년 실천 경험이 있으나 문화가 없는 년로한 로동자이고 그는 단지 나에게 실제 조작방법만 가르칠 수 있고 리론 근거는 해설할 수는 없었다. 그

선심 선과 (善心善果)



문/흑룡강 청춘(清纯)

【명혜망】 2012년 봄 농사지를 때 이웃 밭 주인은 나의 집 밭 이랑 절반(길이 750m)을 점했다. 토지만 바라보며 생활하는 농민인 우리 부부 두 사람은 아주 화가났다. 남편은 말했다: “이 지경이(2012년 새해 46살인 남편은 뇌간 출혈과 얼굴 마비 신경염으로 입원했다) 된 내가 또 누구를 무서워 하겠어요? 나를 건드리면 나는 병이 재발했다고 입원할거예요.” 나의 남동생도 옆에서 비위를 맞추었다: “매부, 당신이 입원하면 내가 당신에게 농사를 지어줄게요, 어찌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없신 당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너무 무능하지요!” 어떤 촌민도 말했다: “그와 싸워요, (그가)손대면 그를 사취하세요.” 정말로 구경꾼은 일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나의 부친은 그때 방금 우리 두 사람에게 파룬궁을 소개해 주었다. 부친은 옆에서 우리를 일깨웠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일체는 진, 선, 인(真、善、忍)의 요구에 따라하면 틀림 없다.”

하지만 행동에 옮기려 하니 그 마음은 정말로 뼈에 사무치는 괴로움이였다!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며 마음속에서 늘 두 사람이 쟁론하고 있었는데 잠간은 이렇고 잠간은 저렇다 했다. 며칠 되지 않아 남편은 바로 마음을 내려놓았고 마치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았다. 후에 나도 마음을 굳게 먹고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이 가르침에 따라 좋

은 사람이 되려하였다.

어느덧 가을 수확 계절이 다가왔고 그해 장마가 계속되어 곡식을 거두기 쉽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수확기 한대를 다투어 고용하였다. 나는 차 주인과 나의 집에 와서 가을 하자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수확기가 방금 발머리에 이르자 이웃집에서 차 주인을 강제로 끌고가 차 주인더러 먼저 그의 집 옥수수를 거두어라고 했다.

이웃 밭의 옥수수대는 수분이 매우 많아 옥수숫대가 바줄처럼 뒤엉켜 기계가 고장났다. 차 주인은 차를 수리한 후 이 밭은 기계로 수확할 수 없다며 인력을 고용할 것을 건의했다. 내가: “우리 집의 수확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차 주인은 말했다: “당신들 두 집 밭은 연이어 있는데 그의 집에서 수확할 수 없는 것을 당신 집이라고 수확 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늘의 뜻에 따릅시다!” 고 말했다. 차 주인은 반신반의하면서: “시험해 봅시다.” 결국 우리 집 곡식은 순리롭게 모두 거두었다. 이튿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풍수의 기쁨을 지니고 우리 두 사람은 시내로 돌아왔다. 겨울이 다가오자 단층짜리 작은 세집은 갈 수록 추위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기발한 생각이 들었다: 층집을 사겠다.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며칠 후 곧 집을 샀다. 설령 돈을 치르지 않았어도 집 주인은 우리를 몹시 신임하며 열쇠와 집문서를 전부 우리에게 주면서 말했다: “나에게 급히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당신들이 먼저 거주하고 량식 가격이 오르면 다시 팔아요.”

내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자 집 주인은 말했다: “당신들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당신들을 믿어요.”

편안한 새 집에서 살게되니 일상 생활은 많이 편리해졌다. 남편은 일체를 배치해 놓은 후 농촌에 돌아가 량식을 팔았고 층집을 산 돈을 전부 집 주인에게 주었다. 바로 우리가 량식을 판 후 농촌의 량식 가격은 런 이어 떨어졌고 최저 가격은 우리 집보다 한근에 십전 적게 팔았다.

친구들은 모두 우리 집이 운이 트여 량식을 높은 가격에 팔았고 그리고 값싼 층집 한채를 샀다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이것뿐만 아니예요! 나의 시어머니는 아들의 파룬궁 수련을 지지하여 시어머니 온 몸의 병이 다 나았고 또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 선, 인(真、善、忍)” 에 따라 수련한 아름다움이다! 오직 친히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써 알 수 있다. ◇

르쳤으며 차차 나는 색을 식별할 수 있었다. 후에 나는 그림 그리기를 배우면서 조금 체득 하였다. 그림 그리는 중에 색채에 대한 나의 감수는 제일 깊다. 파룬따파는 부단히 나에게 지혜를 열어주어 나로 하여금 색채를 파악함에 부단히 진보하게 했다. 매번 그림 그릴 때마다 모두 마치 그곳에 간 것처럼 자신이 바로 그 대자연의 일원이었고 이렇게 그린 그림은 아주 좋았다.

나는 어릴적부터 파룬따파를 배웠기에 사람이 되는 도리를 알았고 진, 선, 인(真、善、忍) 요구에 따라 하나의 좋은 사람이 되었다. 나는 늘 동학을 도왔고 주동적으로 교실을 청소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신분을 막론하고 매번 나는 모두 다가가서 도와주었다. 매번 길가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와 어머니는 모두 그들에게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 를 알려주었다. 내가 모든 어린 친구와 세상의 매개 사람이 모두 파룬따파 진상을 료해할 수 있고 하나의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얼마나 희망하는지를 모른다. ◇

—— 국가등록시험 한번에 통과 ——

문/대륙 파룬궁 수련생 산옌(山岩)

【명혜망】 나는 어려서부터 각종 질병에 시달렸으므로 나는 무술과 각종 기공에서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찾았다. 대학에 들어간 후 상아탑이 상상한 것처럼 순결하지 않음을 느끼면서 대학에 붙는 것도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 하여 또 각종 학설과 중서방 종공에서 인생의 진리와 우주의 최종을 찾았으며 사찰 도관에 가서 도를 찾고 부처를 물었으나 모두 리상적인 답안을 찾지 못했다.

1995년 하반기 나는 행운스럽게 《파룬궁(法輪功)》(파룬궁 주요 저작 중의 하나)을 봤고 첫 페이지를 펼치자 내려놓지 못하고 하루 오후 《파룬궁(法輪功)》 이 책을 다 보았다. 당시 나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으며 너무 좋았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일생중 찾으려던 불법이었다. 책에는 내가

다.

학교 갈 나이가 되어 어머니는 나에게 본지방의 한 비교적 좋은 학교를 찾아주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두개월의 학전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 두개월에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입학 때는 이 학교에서 접수를 거부하여 어쩔수 없는 어머니는 나를 구역에서 나는 학교로 보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가르친 병음, 수자 세기를 내가 모두 모르자 후에 선생님은 나를 관계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2학년에서 곱하기를 다 아는데 나는 2학년에 가서 백개 수자도 세지 못하여 동학, 외사촌 형, 외사촌 누나 모두 나를 비웃었다. 어머니는 매일 나에게 수자 세기를 몇 십번 가르쳤다. 후에 어머니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곧 포기하고 나를 데리고 《전법륜(转法轮)》(파룬궁의 주요 저작)을 읽었다. 글을 알지 못하므로 어머니가 한구절 읽으면 내가 한구절 읽고 석달에 《전법륜(转法轮)》을 한벌 읽은 후 나는 글을 알았고 수자를 셀 수 있었고 문제도 풀 수 있었다. 파룬따파 수련은 나를 개변시켰으며 바로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열어주었다.

초등학교 4학년, 학년조에서 전구역 수학 시험에 참가하였는데 나는 제8등을 따냈고 우수 상을 받았다. 높은 학년 때 수학 경기에서 여전히 늘 상을 받았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어 병음을 습득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어찌 하여도 잘 배우지 못했다. 어문도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나는 줄곧 파룬따파를 견지하여 배워 어문 성적도 좋아져 작문 점수와 열독 점수가 아주 높았다. 기억에 한번은 선생님이 우리더러 열독 리해 문제 하나를 풀라고 했는데 이튿날 답안을 공포할 때 전반에 나 한사람만 많은 문제를 맞혔다. 선생님은 저반 앞에서 나를 칭찬했으며 이는 이전이라면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한다. 원래 나의 어문은 그렇게도 차했지만 파룬따파가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더러 어문을 잘 배우게 하였으며 심지어 소설도 쓸 수 있게 했다. 소설은 이미 인터넷에서 발표했으며 자신의 팬이 있게 되었다.

나의 가족중에 색망 유전사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고조부, 조부, 부친 모두가 색망이었으며 처음엔 나도 색상을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전법륜(转法轮)》을 배운 후 나에게 색을 식별하는 것을 가

진상을 료해한 후 나는 안건을 대리할 줄 알게 되었다

내가 배운 것은 법률 전업이고 변호사 자격증 시험을 치르고 한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는데 전문 사람에게 대리소송을 하고 있다. 내가 어릴적부터 받은 교육은 바로 “사람은 꼭 하늘을 이긴다”, “일체를 의심하고, 투쟁하는 철학”이며 나는 줄곧 오직 내가 노력했다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1999년 7월 20일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해 서부터 나는 돈 한푼 벌지 못할뿐더러 또 하루 종일 소송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도 만나지 못할뿐더러 자신이 어떻게 밖에 나가 업무를 늘일지도 몰랐다. 이런 상태는 줄곧 내가 파룬궁 진상을 료해한 후까지 지속되었다.

2003년 10월 한 동료는 나에게 “천안문 분신자살”의 의문점을 알려주고 나에게 《전법륜(转法轮)》(파룬궁의 주요 저작) 책 한권을 주었다. 내가 《전법륜(转法轮)》 제7장 “살생문제(杀生问题)”를 다 본 후 나는 비로서 중공이 무엇때문에 파룬궁 서적을 회멸시키려 하고 금지 시키려 하는 것을 알게되었다. 왜냐하면 만약 백성이 모두 파룬궁 서적을 볼 수 있다면 곧 파룬궁 진상을 다 알게 되고 중공이 위조한 “천안문 분신자살”과 문장이 길고 지루한 거짓말 선전이 사람을 기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중공의 거짓말을 끝이듣고 처음에 동료가 “천안문 분신자살”은 중공이 파룬궁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제작한 하나의 위조 안건이란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동료에 대하여 적의가 가득차 있었다. 마치 그녀가 나의 리의를 상해한 것처럼 근본 그녀가 더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에게: “내가 당신을 고발하여 당신을 붙잡아 가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내가 《전법륜(转法轮)》을 다 보고 파룬궁에서 살생을 금지함을 알고나서 나는 자신이 너무 리성적이 못되고 대뇌를 통해 사건의 진위를 분석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중공의 소리에 따라 마구 소리 질렀음을 느꼈다. 나는 자신의 이런 비리성적에 대해 몹시 슬펐고 동시에 파룬궁을 수련하는 이 동료에 대해 탄복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정말 위대하다. 그녀는 고발당하고, 붙잡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진

상을 알려주었는데 그녀의 이것이야말로 선행이다.

이후로부터 나는 늘 길에서 파룬궁 진상 스티커,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있으면 나는 특별히 기뻐했고 그것들이 오래도록 붙어있기를 희망했으며 파룬궁 진상이 도처에 알려지기를 희망했다. 나도 가는 곳마다 “천안문 분신자살” (그림과 같이)은 가짜이고 진상이 어찌어찌하다는 등등을 이야기했다.

바로 내가 방금 파룬궁 진상을 알고 사람들에게 “천안문 분신자살” 진상을 알려준 후 나의 원래 회사에서 나더러 돌아가 출근하라 했고 변호사 사무소의 주임도 내가 계속 사무소에 남아 있기를 희망했다. 나는 단번에 두개 직업을 갖게 되고 회사의 로임은 보장이 있게 되고 변호사 사무소에서 나도 안건을 맡기 시작했다. 관건은 내가 안건을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당사자를 위해 생각할 줄 알고 그들에게 법률 도움을 주고 또한 내심히 문제를 해결하고 꼭 안건을 대리해야겠다고 집착하지 않았다. 만약 당사자 스스로 소송에서 이길 능력이 있으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과 나의 안건 처리 경험을 전부 그에게 알려주고 당사자를 도와 변호사 대리 비용을 절약하게 하였다. 내가 당사자를 위해 생각하자 당사자는 일이 있으면 직접 나를 찾았고 나를 솔직하게 대하여 나와 당사자는 아주 사이 좋게 지냈다. 이렇게 당사자는 모두 직접 나를 찾아와 안건을 대리하라고 호상 알리며 나는 아주 흥분하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는 안건 래원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내심으로 똑똑히 알고 있다. 이것은 내가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를 굳게 믿고 사람들에게 ‘천안문 분신자살’ 은 가짜라는 것을 알리며 얻은 복보이다. 나는 내심으로부터 파룬따파와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



■ 초점 탐방(焦點訪談)의 “분신자살” 화면 중 “분신자살자” 왕진동(王進東)의 옷, 얼굴이 모두 타버린 것을 뚜렷이 볼 수 있으나 두 다리 사이 휘발유를 담은 비닐 음료 병은 오히려 전혀 손상이 없으며 가장 타기 쉬운 머리카락도 제대로 있다. “왕진동”의 몸 뒤에 한 경찰이 소화 담요를 들고 촬영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 마을 사람은 모두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전부 몰려와 물어봤다: 당신 집의 농작물은 어찌하여 우박에 맞지 않았어요? 조카의 아들이 말했다: “우박이 내릴 때 우리는 성심껏 큰 소리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를 읽었어요, 때문에 우리 집의 농작물은 우박에 맞지 않았어요. 당신들 말해봐요 신기하지 않나요?”

조카 일가족은 몇년전에 내가 이야기 한 파룬궁 진상을 들었고 그들은 모두 파룬따파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전에 가입했던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을 탈출하여 집의 생활은 흥성하였다. 이번 그들은 더욱 자연 재해에서 파룬따파의 보우를 받았다. ◇

| 지혜의 근원 |

파룬따파는 사람을 선을 향하도록 가르치고 해야될 수 없는 사람에게 행복과 리익을 가져다 주었다. 파룬궁을 수련하면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사람으로 하여금 성실, 선량, 관용, 평화롭게 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열 수 있다

누가 렬등아에게 지혜를 주었는가

문/대륙 파룬궁 수련생

【명혜망】 매개 사람은 일생중에 모두 일정한 운명이 있다. 어떤 사람은 몹시 행운스럽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다지 행운스럽지 못하다. 나는 원래 행운스러운 아이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운이 바뀌어 하나의 행운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파룬따파 작은 제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력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은 한살에 입을 벌려 말을 하지만 나는 말을 할 줄 몰랐다. 나는 네살에 겨우 입을 열어 말했

사후 이 세 사람은 친척친구를 초대하여 큰 재난에 죽지 않은 것을 경축했다. 술상에서 세 사람은 앞다투어 이 사건의 전과정을 서술했고 모두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이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으며 왕푸는 또 친척친구에게 “3 퇴” 를 시켰다. ◇

우박이 지나간 후 손해받지 않은 논밭

문/흑룡강 파룬궁 수련생

【명혜망】 나의 조카는 흑룡강성 란서현에 살고, 그의 집은 일천여무밭에 농작물을 심었다. 올해 6월 하순의 하루 거센 폭풍우가 갑자기 습격해 왔고 잇따라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다. 계란 노른자위만큼 큰 우박이 탕탕 내리쳐 문, 창문은 황광하는 소리가 났다.

몹시 조급한 조카 온가족은 일년의 피땀이 곧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열여섯살인 조카 아들이 갑자기 내가 그에게 가르친 말이 생각나 입으로 부단히 큰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아이의 부모도 정신이 들자 따라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를 읽었다. 우박은 이십몇분 내렸고 그들은 이십몇분 줄곧 외쳤다.

비바람이 멎고 하늘도 개이었다. 밭에 가서 보니 일가족은 전혀 자신

의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참으로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주위 다른 집밭의 농작물은 모두 큰 우박에 맞아 뒤죽박죽이여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유독 그의 집 농작물은 추호도 손상이 없었



세인이 선님이 나오자 즉시 나타난 복보

근년에 일부 과학 실험은 “선(善)” 은 진실한 물질 존재라는 것을 증실했다! 선념(善念)은 사람의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고 선념은 복을 불러올 수 있다. 파룬궁 수련생이 세인에게 파룬따파 진상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견증했다. 세인이 파룬따파에 대한 선념이 생기자마자 즉시 바로 복보가 나타났다.

◆ “당신들 파룬궁은 진짜로 복을 가져다 주는 불법이에요!”

어느 한번 내가 향우(香芋), 땅콩을 파는 할머니에게 진상을 이야기했다. 나는 파룬궁 사부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일체는 모두 “진, 선, 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가늠하고 좋은 사람중의 더욱 좋은 사람이 되며 좋은 사람은 복분이 있을 것이고 구원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한 말을 믿는다면서 내가 넘겨준 진상 자료를 받았다, ……잠깐사이 저도 모르게 사람들은 그녀의 노점 주위에 모여들었고 장사는 즉시 흥성해졌다. 갑자기 그녀는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아참, 내가 아직 당신이 말을 채 듣지 못했는데 나의 물건이 다 팔렸네, 당신들 파룬궁은 참으로 복을 가져다 주는 불법일세!”

◆ “파룬궁은 참 신기하고 정말 좋아요! 나는 꼭 기억하겠어요!”

2011년 나는 여러번 노점을 벌여 과일을 파는 젊은이에게 파룬궁 진상을 이야기했고 그에게 파룬따파를 존경하고 성실하게 믿으면 평안을 보호해주며 복보가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믿어요! 당신들 파룬궁은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요.” 이후 그는 나만 만나면 곧 나를 “좋은 아주머니” 라고 불렀다. 어느날 아침 한창 구멍가게를 진열하던 그는 나를 보자 곧 “좋은 아주머니” 하고 한마디 인사를 하고 입으로는 또 소리내어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를 읽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무리 사람들이 오더니 그의 구멍가게를 에워싸고 그의 과일을 샀다. 그는 즐거워하며 바빠 보내기 시작했고 또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모두 이 파룬궁 아주머니를 따라 배우세요, 그녀는 과일을 사면서 종래로 고르지 않고 탐내지도 않고 더 차지하지 않아요!” 고객들도 말했다: “아, 파룬궁은 원래 이렇게 좋은 것이었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이의 룡안(龙眼), 여지(荔枝)는 모두 팔렸다. 그는 한편으로는 노점을 거두면서 중얼거렸다: “파룬궁은 참 신기하고 정말 좋아! 나는 꼭 기억할거야!” 그리고 또 나에게 말했다: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과 파룬따파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당신들 파룬궁의 말을 듣고나면 즐겁고 편안하며 일체 고민이 다 없어집니다! 나는 이후 가짜 물건을 하지 않고 저울눈을 속이지 않고 공평하게 거래하고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를 기억하며 나도 량심이 있는 좋은 사람이 될거예요.” ◇

하늘이 내린 홍복(天賜洪福)

파룬궁은 또 파룬따파라고 하는 불가 상승의 수련공법이다. 억만 파룬궁 수련자들은 모두 직접 파룬따파의 아름다움과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초상적인 효능을 체험했다. 수련자는 “진, 선, 인(真, 善, 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자신의 심신이 수익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족에게도 상상외의 복분을 가져다 준다.

어진 아내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온 가족 덕을 보다

문/호북 파룬궁 수련생 가족 구술

【명혜망】나의 아내가 파룬궁을 수련한지 20년이며 우리 온 가족은 모두 따라서 덕을 보았어요!

나의 아내는 련공하기 전 마작을 놓고 도박을 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성질이 거친 사람이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마작을 놓고 도박을 하며, 밤을 새우다보니 30 몇살 때 이미 “황안파(黃臉婆)” 가 되었어요. 돈을 잃으면 곧 나와 다투며 집안일도 하지 않았어요. 후! 그때의 삶을 생각하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어요!

을 하고 목메여 울면서 말했다: “바로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나의 남편의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파룬따파 사부님이 없었다면 오늘 나의 남편은 떨어져 죽었어요.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드려요!” 파룬궁 수련생은 잠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자 다급히 그녀를 부추켜 일으키고 원인을 똑똑히 물었다.

원래 이 여성의 남편은 왕푸(王福,가명) 이고, 올해 53살이며 장기간 동업 운수 장사를 하고 있었다. 9월 23일 이날, 아침 일찍 그는 차를 몰고 하북에 물건 실으러 갔다. 하북 마반령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날 때 화물차는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 차체가 급속히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앞 몇백미터 되는 곳은 바로 큰 깊은 골짜기였다. 한차례 차가 회손되고 사람이 사망하는 참사가 곧 발생하려는 것을 뻔히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차안의 세 사람은 모두 오직 머리를 붙들고 두 눈을 꼭 감고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때 왕푸는 갑자기 평소에 파룬궁 수련생이 그에게 위태로운 시각에: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쥘, 쥘, 런 하오(真、善、忍好)” 를 외치면 곧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알려준 것이 생각났다. 하여 위기일발의 찰나에 그는 온몸의 힘을 다 써서 크게 외쳤다: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리홍쯔(李洪志) 사부님 빨리 목숨을 구해주세요!

말소리가 터러지자마자 급속히 미끄러져 내려가던 차체가 마치 사람에게 한번 밀린 것처럼 머리를 돌리더니 옆쪽의 큰 나무를 향해 부딪쳐 순식간에 큰 나무에 걸렸다. 차에 앉은 왕푸는 마침 큰 나무 한쪽편에 있었고 제일 위험한 위치였지만 그는 온몸에 조그마한 상처도 없었다. 다른 두 사람은 차 아래에서 기어 나왔는데 한사람은 한쪽 팔이 부딪쳐 끊어졌고 한사람은 바람 막이 유리 조각에 얼굴이 긁혀 상했으나 모두 생명 위험은 없었다.

이 왕푸를 말한다면 평소에 파룬궁 수련생이 그에게 진상을 이야기 하면 그는 모두 접수하고 파룬궁을 련마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다. 또 일찍 중공 당, 단, 대 조직을 탈출(“3퇴” 라 간칭) 하였으므로 이번 차 사고에서 그는 평안 무사했고 두 동반자도 따라서 수익한 것이다.

슬퍼 말아요.” 병실에 들어가 나는 검은 얼굴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 입으면서 옷 호주머니를 만지자 호주머니속의 파룬따파 호신부가 손에 쥐였다. 나는 온몸이 뜨거워지며 단번에 뚜렷해졌다: 위태로울 때 나를 차에서 밀어낸 그 큰손은 원래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이었어요! 그 분은 나의 외할머니의 사부님이며 나도 줄곧 “사부님” 이라 불렀으며 바로 사부님께서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어요! 나는 급히 합장하여 외할머니께 감사드렸다.

외할머니는 엄숙하게 말씀했다: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좋은 것을 얻었으니 빨리 나의 사부님께 감사드려라!” 나는 평소에 사람을 만나면 곧 이야기 한다: “진심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쩐, 썬, 런 하오(真、善、忍好)!’ 를 읽으면 큰 재난이 올 때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일은 나 자신의 몸에서 검증됐다!

오후 전면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일체 정상이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눈물이 글성하여 나의 두 손을 잡고 격동되어 말했다: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쩐, 썬, 런 하오(真、善、忍好)! 리홍쯔(李洪志) 대사님은 진짜로 신불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을 구하고 있구나! 우리는 평생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크나큰 은덕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화물차가 돌진한 곳은

절벽.....



2009년 9월 23일 저녁 7시좌우, 료녕성 룽원시 부처님 동굴향 전장자촌의 한 녀성이 허둥지둥 파룬궁 수련생의 집으로 오더니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풍덩하고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사진 앞에 끌어앉아 연신 절

1995년 아내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고 이로부터 나에게 좋은 삶이 찾아 왔어요, 그들 파룬궁은 “진, 선, 인(真、善、忍)” 을 말하고 있지요! 우선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음을 실행 했고 어떤 나쁜 습관, 나쁜 일에도 더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나도



다시는 그녀한테 욕을 먹지 않았고 내가 마작을 놓고 돌아오면 그녀는 또 나에게 밥을 지어주고 내가 돈을 잃어도 그녀는 나를 욕하지 않았어요. 나의 그 기쁨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도 마시요.

한번은 나는 싸우면서 사람을 때려 그 사람은 피부가 좀 찢기고 피를 좀 흘렸어요. 그 사람은 한 무리 지방깡패와 결탁하여 나더러 의료비, 영양비 몇천원을 내놓으라고 협잡했어요. 그때의 몇천원이란 우리 로임 계층의 사람을 놓고 말하면 아주 큰 액수였어요! 나는 속으로 불복했고 곁에 있던 이웃도 모두 화를 참지 못해 분분히 사람을 찾아 나를 도와 이 분을 풀려 했어요. 당신들 맞춰봐요 어떻게 했을가요? 나의 아내에게 전부거절 당했어요! 아내는 말했어요: “당신이 사람을 때려 상하게 한 것은 사실이며, 의료비와 영양비를 조금 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며, 얼마를 요구하냐는 그 사람의 일이고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해요. 만약 그 사람들의 부추김을 듣고 당신도 사람을 찾아 그와 싸워 일이 생긴다면 역시 당신이 정리해야하는데 일이 커지면 당신은 감당할 수 있나요?” 야! 이전의 나의 아내는 일리가 있으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일리가 없어도 한 천하를 여는 사람인데 어찌 파룬궁을 런마한지 석달도 안되었는데 이런 큰 변화가 있단 말인가? 참으로 불가사의하며 불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내는 매일 런공점에 가서 법을 학습하고 런공하여 신체가 좋아지고 정력이 넘치고 피부 역시 희고도 불그레하여 이웃들은 모두 당신의 아내는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도파(賭婆)”라 불렀으나 지금은 모두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오래도록 부르는 사람이 없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이런 좋은 삶을 겨우 몇년 지냈는데 1999년 7월 텔레비전에서는 갑자기 24시간 굴림식으로 파룬궁을 모독하는 뉴스를 보도했고 잇따라 공장 보위과 사람들도 무단히 나의 집에 와서 교란했어요. 나는 말했어요: “나의 아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인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지 않나요? 바로 파룬궁이 그녀에게 ‘진, 선, 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기에 그녀는 비로서 이런 좋은 신체가 있고 우리는 비로서 현재의 좋은 가정이 있게 되었고 이런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목격했어요!”

한동안 지나 그들은 나의 아내를 가두고 그녀를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무슨 우두머리인가요? 그녀에게 관리직을 준 사람도 없고 더욱이 그녀에게 돈 한푼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녀는 다만 매일 아침 일찍이 가서 여러분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청소하였고 파룬궁을 배우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녀는 번거로움을 귀찮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련공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나의 아내를 죽도록 괴롭히고 사인상(死人床)에 며칠이나 묶어 놓았어요. 1999년 7월부터 2004년까지 나의 집은 조용한 적이 없었고 그 사이 아내는 또 불법으로 로동교양 2년을 당했어요. 그때 아이는 아직 어리었는데 동학들이 그를 조롱하여 아이의 심신은 막대한 상해를 입었어요.

아내가 로교소에서 돌아 온 후 공장은 이미 무너졌고 30년의 근무 경력에 2만원만 주어 우리는 할 수 없이 품팔이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아내는 이전에 자부심이 강하여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생활을 위해 가정부가 되었고 나는 도리어 한가지 일도 찾지 못했으며 운반공을 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다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허나 아내는 종래로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곳곳마다 “진, 선, 인(真、善、忍)”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고 일을 매우 뛰어나게 하여 그녀의 로임은 같은 업종의 사람보다 많이 높았어요. 그 몇해는 완전히 아내가 일한 것으로 일 가족의 지출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는 늘 아내를 따라다니며 파룬궁 진상자료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노아방주(诺亚方舟)》영화속의

는 도리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이 일은 몇년 전의 새해 후에 발생했다. 그날 사장은 나더러 아침 일찍 그를 데리고 나가게 했다. 차가 개발구 한 공장 문어구에 도착하자 사장은 차에서 내려 공장에 돈 받으러 갔고 나는 차를 길 옆쪽에 잘 세워놓고 차에서 핸드폰을 갖고 놀았다. 한 동안 지나 길에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출근하고, 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갑자기 나의 머리 위에서 맹렬한 우뢰 소리가 나더니 차 머리 뚜껑이 내려앉고 기름통은 불이 붙었으며 차문과 앞쪽의 바람 막이 유리 조각이 마구 날렸다. 나는 자신이 놀리워 하나의 고기덩어리가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큰손이 나를 차 밖으로 밀어냈고 그리고 나서 나는 곧 아무것도 몰랐다.

좀 지나 자신이 마치 차가운 물에 떨어진 것 같아 깨어났다. 누군가 울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이여, 차가 뒤죽박죽이 된 것은 작은 일이나 사람이 죽으면 나는 어찌 배상할 수 있나요!” 눈을 뜨고 보니 사장이 나의 앞에 끌어앉아 울고 있었고 나는 바로 땅에 누워있었다. 하지만 어디도 아프지 않자 단번에 똑똑히 알고 곧 바로 일어났다.

나의 반쪽 얼굴은 새까맣고, 옷은 절반이 새까맣게 되었을 뿐더러 한 군데 찢어졌다. 하지만 피가 흐르지 않고 기색이 괜찮은 것을 보고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이 자식은 명은 어찌 이렇게 큰가요, 신분이 보우했을거요!” 나는 들으면서 차를 봤는데 차 머리는 내리박혀 차체와 평형되었고 위에는 몹시 크고 실한 네모난 사각 철관 하나가 누워있었다. 케이블 설치용이라고 하는데 설치할 때 기중기가 공중에서 회전하다 갑자기 끈이 끊어져 고공에서 수직으로 나의 차 머리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 광경을 보고 나는 내가 사람에게 밀려나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이미 납작한 고기전이 되었을 것이니 참으로 사후에 생각해 보니 무섭게 느껴진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꼭 그를 찾아 그에게 중한 예로서 사례하겠다!

이때 구급차가 왔고 나는 병원에 실려가 전면 검사를 받았다. 병원에 달려온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들도 눈물이 글썽글썽하여 전면 검사를 하는 나를 동반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별일 없어요,

았다. 그들은 감히 사람더러 진상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10 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밤, 갱내 노동자들이 참사 장면을 떠올리면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번은 꿈에 그 두 사람을 봤는데 내가 손을 내밀어 그 두사람을 붙잡았으나 그들의 손은 도리어 벗어났다. 꿈 속에서 깨어나니 나의 눈물은 멈출 수 없이 흘러 내렸다: 모두들 구원되었어요. 오직 당신 둘만 어찌하여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를 믿지 않고 외치지 않았나요? 당신들은 아시나요? 당신들의 아내와 아들 딸은 울어서 어떻게 되었나요? 당신들의 아내는 울면서 당신들을 욕해요: 함께 있던 이십여명은 모두 살아 올라왔는데 당신들은 무슨 량심을 잃은 일을 하였는가요? 애석하게도 당신들은 중공의 거짓말에 너무 깊이 기편 당해 선한 말로 권고하는 것을 듣지 않아 결국 이런 슬픈 결말을 얻은 것이예요.

그들 구원된 사람들을 보면 나는 비할 바 없이 기쁘고 안심되네요: 그들은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를 외치자 바로 평안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파룬따파는 위력이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

■ 외할머니는 엄숙히 말씀했다: “나한테 감사 하지 말고 우리 온가족이 좋은 것을 얻었으니 빨리 나의 사부님께 감사드려라!” 나는 평소에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 한다: “진심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 쩐, 쩐, 런 하오(真、善、忍好)!’를 읽으면 큰 재난이 올 때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일은 나 자신의 몸에서 검증됐다!



큰손이 나를 차 밖으로 밀어냈다

문 / 허더푸(何德福) 자술, 파룬궁 수련생 정리

【명혜망】 나는 올해 스물네살이고 자가용 소형 화물차를 몰며 생활한다. 어느 하루 불행하게 큰 재난에 봉착하여 차가 전부 회손되었는데 나

노아마냥: 큰 배를 만들어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파룬궁 수련생이 하고 있는 일도 이런 리치며 진상자료를 보는 것을 원하는 사람, 중공 당, 단, 대 탈출을 원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되는 배표를 한장가지게 되는 것과 같아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곧 당신을 구조하는 나룻배가 있어 무슨 은역이며, 천지개벽이며 모두 당신과 상관 없어요; 만약 파룬궁 수련생이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에게 나누어 주는 진상자료를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면 바로 당신이 나룻배에 오르는 것을 거절한 것과 같으니 재난이 올 때면 올 기회도 없어요. 그러므로 더욱 많은 사람이 재난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파룬궁 수련생은 17년래 세상 사람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든 그들은 시종 모두 원한도 없고 후회도 없이 세상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아내를 도와 적의만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였기에 파룬따파의 보우를 받아 몇번이고 위험에 봉착해도 모두 위험에서 벗어나 무사하게 되었어요.

날염 공장에서 일할 때 었어요. 한번은 나의 손이 날염 기계에 눌리워 들어갔는데 압연 롤러의 압력이 몇돈이예요? 관례대로 하면 손이 눌리워 들어가면 어깨도 아주 빨리 끌려 들어가지요. 하지만 나는 억지로 손을 끄집어내었고, 보니 엄지손가락만 한 덩어리 피 무덤으로 되었어요. 병원에 가서 여섯시간 수술을 했고 의사는 나의 엄지손가락 속의 힘줄이 수축되어 잇기어 놓았지만 엄지손가락은 가능하게 불구가 될거라고 했어요. 나의 아내는 매일 병원에서 나를 동반하면서 나더러 속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 쩐, 쩐, 런 하오(真、善、忍好) !를 읽으라고 했고,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매일 읽고 또 읽었어요! 나의 손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현재 한 개인 기업에서 일하는데 로임은 5 천원 정도이고 높을 때는 만원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나의 아내가 파룬궁을 수련하기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은 모두 그녀를 지지하며 잠시 얼마나 큰 억울함을 당하던 우리는 시종 언제나 파룬궁에게 청백을 돌려줄거란 것을 믿고 있어요! 이 공법은 참으로 너무 좋고 우리 가족은 직접 수익한 사람들이예요. 나의 아내는 수련하여 이십년간 병을 보인 적이 없고 약을 먹은 적은 더욱 없으며 우리 집 사람들마저도 병에 잘 걸리지 않아요.

우리 공장이 무너진 후 대부분 직원은 아직도 원지방에 살고 있으며 집도 전세기 70년대의 낡은 집이며 많은 사람은 생활마저 문제가 되었어요. 허나 나의 집은 현재 시내 구역에서 130 여평방미터의 집을 한채 샀고 차도 샀어요. 이는 우리 계층에서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루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모두 나의 아내가 파룬궁을 수련하여 가져 온 복분이에요!

나의 아들, 며느리는 현대 젊은이들의 나쁜 습관이 없고 특히 나의 며느리 역시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사람이예요. 집을 질서 정연하게 거두고 또 요리 솜씨가 좋으며 집에서 하루 세 끼 모두 그녀가 밥을 지어요. 집에 손님이 얼마 오든 모두 침착하게 반찬을 한 상 가득히 차려놓고 식사 후 그들 젊은 부부는 또 밥상과 사발 젓가락을 거두어요. 친척친우 부러워 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저마다 모두 말해요: 지금 어디에 가서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찾겠어요! 이는 모두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좋은 제자를 가르친것에 감사드려야 해요. ◇

네 자매 가정의 변화

【명혜망】 1997년 5월 나는 행운스럽게 파룬따파를 수련했고 두달 후 몸에 있던 9종의 질병은 가뭏없이 사라졌다. 나의 남편은 진정으로 수련하지 않았지만 그는 때론 《전법륜(转法轮)》(파룬궁 주요 저작)을 즐겨 보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치질은 치료하지 않고 나왔고 기관지염, 신경성 두통도 다 나왔다. 이전에 갖은 방법을 생각해 술을 끊으려 해도 끊지 못했는데 《전법륜(转法轮)》을 본 후 천천히 끊어버렸다. 나도 파룬따파의 “진, 선, 인(真、善、忍)” 도리로 아이를 교육하여 두 아이는 모두 품덕이 고상하고, 학습이 우수하며, 보는 사람마다 칭찬했다.

우리에게 힘을 주어 온몸이 가벼움을 느끼고 눈앞이 밝아지고 체력이 강건해졌으며 마음엔 신심이 가득했다. 나는 우리가 구원될 것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뚜렷하게 알았다.

하지만 여전이 사람을 아쉽게하는 일이 있었다. 두 사람은 믿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파룬따파와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을 욕했고 그들 둘은 마지막에 진짜 살아 올라오지 못했다.

거의 4시쯤 나는 이곳 공기가 점점 적어지고 금방 모자랄 것임을 의식했다. 나는 다른 한 동료와 함께 소식을 전하러 가기로 결정하였다. 갭도가 막힌 곳까지 걸어 가자 나는 우리 두사람이 팝시다. 더 많이 파면 바람이 좀 더 들어오고 형제들은 곧 더 많은 생존의 희망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우리 둘은 힘껏 땀을 흘렸다. 손이 다슬어 피가 나고 썩은 나무가 무너져 나의 어깨, 다리 위를 내리쳤으나 아픔을 돌볼 새 없었다. 방금 좀 크게 파면 또 바위가 떨어져 전부 막아버렸고 계속해 파서 우리 둘은 손으로 십여톤의 바위를 땀으로 줄곧 뚫릴 때까지 땀을 흘렸다.

더 앞으로 나가 출구를 찾았으며 마지막에 차고 통로를 찾았다. 차고, 차 대기실은 전부 무너져 박살났으며 안에 50~60명은 전부 죽었고 우리는 문으로 올라가 끝내 지면에 올라갔다. 이때 기자가 나를 취재했는데 나는 말했다: “4 채광구에 아직 25명이 있으니 빨리 내려가 사람을 구하세요.” 나는 사람을 구하던 과정을 한번 말했다. 나는: “나의 사부님이 없었다면 누구도 올라올 수 없으며 나 한사람 뿐만 아니라 바로 10개 목숨이라도 일찍 질식했을 것이예요. 당신들은 ‘파룬따파 하오(法轮大法好)! 찌, 찌, 런 하오(真、善、忍好)’! 를 기억하고 사실대로 보도해야 해요.” 라고 말하자 그들은 동의했다. 하지만 텔레비전 방송국은 단 3일만 방송하고 곧 방송하지 않



침내 세 사람이 나와 함께 사람 구하러 가겠다고 말했고 나는 그들 셋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나와서 거리를 십미터 초과하지 말아요, 꼭 별일 없을거예요.”

철팔십미터 되는 회풍 산에 오르는 갱도는 가파롭고도 미끄러우며 또 밀어닥치는 짙은 연기에 그을리였다. 우리는 조금조금씩 아주 힘들게 움직여 겨우 그 사람을 찾았다. 그를 들고 한발작 한발작 아래로 이동하며 한사람 키만큼 깊은 곧추선 위험한 곳에 이동하였다. 나는 발로 철관을 딛고 까무러친 사람을 구부린 나의 다리 밑으로 조금조금 아래로 내리고 아래에서 두 사람이 받았다. 또 힘들게 밖으로 이동하고 1.5미터 높이의 대자(台子)가 있는 곳에 이동하자 또 아주 큰 힘을 들여 부상자를 아래로 내려보냈다. 마지막에 내려간 사람이 벼란간 곤두박질 하는 것을 내가 재빠르고 날쌔게 단번에 그의 가슴을 안아 그를 받들었기에 그는 비로서 상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나한테 가까이 붙으면 별일 없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잇따라 부상자에 대해 구급조치를 실시하고 그를 구하여 깨어나게 하였다. 부상자가 방금 되살어나자 나와 함께 올라가 사람을 구하던 장씨가 또 까무러쳤다. 나는 또 장씨에게 구급을 실시하였고 아주 큰 힘을 들여서야 그도 구급해 살렸다. 소생 후 그들은 추워서 마구 떨고 있었고 나는 자신의 솜옷을 그들 둘에게 룬번으로 덮어주었는데 나의 몸에는 다만 작업복과 편직 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때 이미 두시간 지났으나 아직도 바람이 없었다. 만약 줄곧 통풍이 안되고 일단 갱내 유일한 공기가 없다면 안에 모든 사람들은 곧 질식사 죽을 것이다. 이때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외치고 어떤 사람은 절을 하며 구원해달라 했고 어떤 사람은 울고 외치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공산당이 부패하여 로동자의 목숨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욕하며 뒤죽박죽 되었고 전부 다 주권이 없었다.

이때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현재 유일한 방법은 바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쩌, 썬, 런 하오(真、善、忍好)’ 를 외워 파룬따파 사부님께 목숨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내가 큰 소리로 외치면 그들은 곧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쳤는데 에너지 마당이 비할바 없이 강대하고 사방으로 확산됨을 느꼈고……나는 머리 꼭대기에 아주 강한 에너지가 있는 것을 뚜렷이 느꼈다. 바로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현재 두 아이, 며느리의 직업이 모두 아주 좋고 수입도 높으며 손자 손녀 두 아이는 모두 총명하고 귀엽다. 파룬따파를 수련하니 복덕(福德)이 끝없고 일 가족 여덟명의 생활은 아름답고 원만하며 아늑했다.

자매들은 나의 심신의 변화와 가정의 행복을 보고 그녀들도 잇따라 파룬따파를 수련했다.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우리의 운명을 개선했을 뿐더러 친인들도 따라서 리익을 얻었다.

◆ 큰 언니: 병으로 지친 할머니가 기둥으로 변했다

큰 언니는 모친의 위병을 유전받았는데 몹시 엄중했다. 그녀는 15 살 때 또 풍습성 관절염에 걸렸고 두 다리는 동통으로 심한 8자형으로 변하여 원래 키가 작던 그녀는 더욱 작아졌다. 40 몇살인 사람이 마치도 60 여세인 작고 검은 할머니 같았다.

큰 언니는 한 편벽한 작은 산간마을에 살고 있으며 1997년 겨울 그녀는 파룬궁을 배워 런마하기 시작했다. 1998년 여름 그녀의 허리 복부 둘레에 아주 넓은 큰 고름집이 자라났고 잇따라 흘러 내린 피고름이 끈적끈적 가득 달라 붙어 그 속에서 정상 피부란 조금도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사반창(蛇盤瘡, 대상포진)이니 치료를 지체하면 생명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몹시 놀란 나의 큰 형부도 억지로 그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려 했다. 허나 큰 언니는 말했다: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나의 신체를 정화해 주시는 것이예요.” 결국 4~5일 후 바로 나왔고 피부는 반들반들하고 조금의 허물도 남기지 않았고 가족들은 모두 신기하다고 생각하며 이로부터 파룬따파를 믿었다.

그 후로부터 큰 언니의 허리 다리 통증은 다 나았다. 형부가 밖으로 일하러 가면 집의 심여무 밭은 모두 그녀 혼자서 심었다. 때로는 그녀는 또 다른 사람의 비닐하우스에 가서 일을 했고 하루종일 열음 같이 찬물로 무우를 씻어도 병이 도지지 않았다



◆ 셋째 녀동생: 고난하던 가정이 변했다

셋째 녀동생은 어려서부터 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성격이 조금 한 남편은 젊은 나이에 기관지염 폐기종으로 앓고 있어 무거운 일을 할 수 없고 해마다 겨울이면 모두 정맥주사와 약을 먹는 것에 의지하며 겨울을 지냈다. 셋째 녀동생도 후에 풍습병에 걸려 집은 더욱 가난했다. 작은 딸이 태어나자 두달만에 6살인 큰 딸이 요절했고 생활중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1999년 7월, 셋째 녀동생은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신체가 좋아졌고 기분도 좋아졌으며 집의 친인들도 모두 따라서 수익했다. 그녀의 딸 푸와(福娃)는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어 집을 떠났는데 학습 성적이 급속히 떨어져 매년 시험에 모두 꼴찌에서 몇번째 되는 학생이었다. 셋째 녀동생은 그녀에게 마음속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를 읽으라고 알려주었고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매일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를 몇번 읽을 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 자기 전 《전법륜(轉法輪)》을 몇 페이지 보았다. 결국 교육학원에 붙었고 또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일자리를 찾았다.

셋째 매부는 셋째 녀동생이 수련를 지지했고, 때론 셋째 녀동생을 도와 파룬따파의 사람을 구하는 진상자료를 나누어 주었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과감히 파룬따파를 위해 바른 말을 하여 역시 복보를 얻었다. 셋째 매부의 아주 엄중한 기관지염과 폐기종은 해마다 경감되고 최근 두해 겨울에는 정맥주사도 맞을 필요가 없었다. 더욱 좋은 것은 반평생 고정 직업이 없었고 올해 이미 60살인 그는 2014년부터 향정부에 가서 차를 몰게 되었다. 현재 셋째 녀동생 일가족 다섯 사람 셋째 매부, 푸와와 그녀의 남편 모두 출근하고 셋째 녀동생은 집에서 외손자를 보면서 아주 원만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

◆ 넷째 녀동생: 헤어진 부부 가정 다시 결합

넷째 녀동생을 또 말해보겠다. 넷째 녀동생은 어릴적 엄중한 영양 불량으로 하마트면 목숨을 잃을번 했고; 어른이 된 후 가정도 이루지 못

려하였다. 나 혼자 물 펌프, 소형 원차(绞车) 등의 스위치를 모두 령 위치에 놓았을 때 그들은 일찍 멀리 달아났다. 하지만 그들은 당황한 혼란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 나는 급히 그들을 쫓아갔다. 차마당까지 쫓아간 나는 한 사람이 까무러친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의 솜옷을 적셔 그의 머리에 씌웠고 아울러 그에게 마구 움직이지 말라고 알려주고는 또 계속해서 짙은 연기를 맞받아 위로 기어 올랐는데 숨이 막혀 나의 두뇌가 부풀어 오르고 눈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나는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빌었고 한편으로 위로 기어 오르며 한편으로 “사부님!”을 부르고,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찐, 썩, 런 하오(真、善、忍好!)”를 웨쳤다. 이때 연기는 더욱 컸고 기본상 손을 내밀어도 다섯 손가락이 보이지 않아 하마트면 한사람을 부딪쳐 넘어뜨릴번 했는데 그는 이미 거이 죽게되었다. 나는 밀고 당겨 그를 연기 먼지가 비교적 적고,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찾았고 이때 나의 신체는 좀 버티기 힘들었으며 손이 말을 안 들었다. 내가 즉시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빌자 곧 백회혈로부터 따스한 흐름이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온몸을 통과하며 줄곧 발바닥의 용천혈까지 갔다. 나는 즉시 전신이 아주 상쾌했고 나는 사부님께서 나에게 관정(灌頂) 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감각은 전후 3차례 있었고 사부님은 나를 구하고 있었으며 이때 나는 매우 감동되었고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도록 울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사부님! 제자는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또 사부님께 나를 가지하여 계속해서 사람을 구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바로 이때 맞은편에서 한무리 사람들이 밀려 나와 뒤죽박죽 되었고 마치 당황해 길을 찾지 못하듯이 도처로 달아났다. 그중 한 사람은 우리 같은 작업조의 가스 검사원이었는데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마치 주견이 생긴 것처럼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우리 여기 27명 직원이 있는데 당신한테 맡기겠어요.” 잠깐 지나 또 두 사람이 와서 말했다: “위에 한사람이 까무러쳤는데 어찌할까요?” 다들 모두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위에는 회풍갱도인데 그곳은 아주 가파롭고 연기 먼지가 몹시 컸다. 나는 곧 말했다.: “갱내에서 여러분은 모두 생사의 형제이고, 고난을 같이한 친구인데 죽는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마

번째 생명을 주셨다.

만약 사부님과 파룬따파가 나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세상에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모든 세인에게 절대로 중공의 거짓말을 곧이듣지 말고 나처럼 그렇게 장쩌민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알려 주련다. ◇

평안 비결

“인심에서 일념이 나오면, 천지가 다 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성심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전, 찐, 런 하오(真、善、忍好)”를 읽으면 하늘의 보우를 받는다. 위협에 봉착하면 곧 위험한 상태를 평온하게 한다. 이런 신기한 일은 바로 우리의 신변에서 발생했다……

특대 탄광 사고, 20여명 구원되다

문/대륙 파룬궁 수련생

【명혜망】 2005년 11월 27일 흑룡강성 칠대하 동풍탄광에 특대 가스 탄진(煤尘)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 171명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파룬궁 수련생인 나는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보우하에 자신이 구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도와서 이십여명을 구해냈다.

그날 저녁 8시 나는 갱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들리는 큰 소리에 밀려 나는 땅에 넘어졌다. 나는 중대 사고가 난 것을 의식하고 즉시 기어 일어나 뛰어가 발파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폭발 소리에 따라 송풍기 통은 바람이 없어졌다! 규정에 따르면 바람이 멎는 고장이 발생하면 제때에 갱도내 일체 전기기구 스위치를 령 위치에 놓아야 하는데 이후에 가스 배출 사고 발생을 피면하려는 것이다. 허나 이때 기타 사람들은 모두 오로지 밖으로 미친듯이 뛰고, 목숨을 건지는 것만 고

했는데 모친은 세상을 떴다. 결혼 후 그녀는 한쌍의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모유를 먹이려면 부족하고 또 분유는 살 수 없어 두 아이는 작고도 여위었다. 후에 내가 매부를 도와 광산에서 일자리 하나를 찾았으나 수입은 여전히 아주 낮았다. 좀 더 절약하여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기 위해 매부는 매일 밥을 배불리 먹는 것조차 아까워했다. 홀로 두 아이를 돌보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한 넷째 녀동생은 과도의 피로로 인해 온몸에 병이 생겼다.

2008년 넷째 녀동생은 파룬궁을 수련한 후 온몸의 병은 모두 온데간데 없었고; 매부의 로임도 해마다 늘어났으며 생활이 부유해지자 또 층집에서 살게 되었다.

생활이 좋아지자 뜻밖에도 넷째 매부는 부정당한 남녀 관계가 생겨 온종일 정부와 먹고 마시며 놀고 즐기더니 마지막엔 넷째 녀동생을 꺼리는 데까지 발전하여 늘 그녀를 때리며 욕하고 때론 한밤중에 그녀를 때려 집을 나가게 했다. 넷째 녀동생과 딸은 방 하나 세를 맡아 살았는데 침대마저 없어 모녀는 바로 땅바닥에서 잤다. 다른 사람도 차마 볼 수 없어 다들 나의 넷째 녀동생더러 리혼하라고 했다. 하지만 넷째 녀동생은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넷째 매부를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관심하며 평온한 마음과 온화한 태도로 그에게 전화하였고 스스로 밥을 지을 줄 모르는 그가 온종일 술을 마시여 신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걱정되었다.

넷째 매부는 결국 선의 힘에 감화되었다. 정부는 그에게 옷을 씻어 주지 않고, 밥을 지어 주지 않고, 그를 보살피지 않고, 오직 그의 돈만 쓰면서 향수만 누리니 그래도 자신의 아내가 좋고 아내를 떠난 생활이 괴로웠다. 그는 재삼 전화를 걸어 나의 넷째 녀동생더러 집에 돌아오라고 독촉했다. 끝내 헤어진 부부가 다시 결합했다. ◇



넋리 전해지다 파룬따파 세계에



스위스



한국

파룬궁은 또 파룬따파라 부르고 1992년 5월 13일 리홍쯔(李洪志) 선생이 중국 장춘에서 전해 나온 불가 상승의 수련공법이고 우주특성 “진, 선, 인(真、善、忍)”을 수련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5조의 느리고 아름다운 공법동작을 포함한다.

● **사람이 선을 향하도록 가르치다** 파룬궁은 한가지 매우 효과적인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공법이고 또한 일종의 숭고한 신앙이다. “진, 선, 인(真、善、忍)”에 대한 신앙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실, 선량과 너그럽게 변하게 한다. 파룬궁은 돈 한푼 받지 않고 의무적으로 공을 가르치며; 배우고 련마하는 자는 오고 가는 것이 자유이고 명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 **사람을 건강하게 하다** 파룬궁은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기이한 효과가 있다. 1998년 국가 체육총국의 발기하에 북경, 무한, 대련, 광둥성의 의학계 전문가들은 거의 3.5만명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5차례 의학 조사를 벌렸다. 조사에서 표명했는바: 파룬궁을 수련하여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한 유효률은 98%에 달했다.

善、忍好)”를 읽었다. 신기한 것은 나는 즉시 호전됨을 느꼈고 나는 두 다리에 힘이 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열이 났고 열이 난 후 또 토했고 토하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해진 것 같았다. 또 며칠 지나 나는 집에 돌아가자고 요구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끊임없이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찐, 쌐, 런 하오(真、善、忍好)”를 읽었고 나는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

남동생은 나에게 파룬따파 책을 가져오더니 나더러 보라고 했고 처음에 나는 그래도 좀 저축했으나 후에 나는 자신을 강박하여 《전법륜(轉法輪)》을 배웠다. 제3강까지 봤을 때 여전히 보고싶지 않았고 마음속에서는 또 이전에 파룬궁을 모독하던 그런 거짓말들이 뒤집혀 책을 내려놓았다. 이틀간 내려놓았는데 하루 아침 하나의 아주 큰 소리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말하는 한편, 한편으로 나에게 발을 눌러주었는데 발바닥에서 물건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현저히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발은 현저히 아프지 않았고, 사부님께서 나에게 신체를 정화해준 것을 알았다. 나는 계속해서 《전법륜(轉法輪)》을 배웠다.



제7강까지 배우고서 마음속으로 알게되었고 마음속 매듭이 풀리자 나는 울었는데 아주 상심하며 울었다. 내가 틀렸었다! 그때에야 비로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며, 비로서 장쩌민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을 알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사부님의 은혜에 대한 말로 할 수 없는 감사였다. 《전법륜(轉法輪)》을 보는 과정중 사부님께서는 3번 나에게 신체를 정화해주셨고 꿈속에서 나는 사부님께서 나의 다리에서 말거머리를 잡는 것을 보았다. 왼쪽 다리에서 한번, 오른쪽 다리에서 한번, 발목에서 한번 잡았다. 이튿날 깨어나 보니 나의 발목에 구멍이 세개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나의 위병은 철저히 나았다. 현재 나의 신체는 아주 좋으며 파룬궁을 수련한 후 다시는 약 한알도 먹지 않았다. 사부님께서 나에게 두

다. 나의 남편과 남동생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나에게 진상을 이야기하면 나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텔레비전의 거짓말 선전이 진짜인 줄 알았다. 특히 나의 남동생이 2001년 12월에 북경에 가서 파룬따파를 위해 바른 말을 하여 불법으로 붙잡히고 세번 구류 당했고 마지막 감옥에 8년 갇혀있자 파룬궁에 대한 나의 오해는 더욱 깊어갔다.

오래지 않아 나는 병에 걸렸다. 처음엔 위출혈에 감기가 멎지 않더니 잇따라 모든 병이 함께 도졌다. 편두통, 중이염, 부비강염, 구강 궤양, 견주염, 경추염, 요추간판 탈출, 좌골 신경통, 발에 티눈이 자라는 것, 간결석, 신장결석, 수뇨관결석, 부인병, 내외 치질 등 십여가지 병은 나를 죽을지경으로 괴롭혔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나는 장기적으로 약을 먹으며 치료했는데 식사 전후 모두 약을 먹었다. 설이나 명절을 맞을 때 다른 사람은 길거리를 거닐며 구경하는데 나는 약방에 들어갔고 부근의 크고작은 약방을 나는 다 다녔다. 크고작은 병원에 다 갔지만 여전히 나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다. 신변의 파룬궁 수련생은 이런 나를 보고 몹시 조급해 하며 나를 권고하고 나에게 파룬궁 진상을 이야기했으나 나는 여전히 무관심했다.

몇년 후 나의 병은 급격히 가중했고 2011년에는 나는 병으로인해 땅바닥에서 기어 다닐 수밖에 없었고 나는 1층마저도 기어 올라가지 못했다. 이때 나의 남동생은 또 와서 나에게 파룬따파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오직 파룬따파만이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으나 나는 자신의 완고한 관념에 가리어 여전히 믿지 않았다.

이때 나의 얼굴은 부어 오르고 발은 부었고 눈은 튀어나오고 귀는 반짝반짝했는데 사람의 리치로 말하면 이미 사망의 변두리에 접근했다. 나의 남편은 나를 광한(广汉) 병원에 데려갔다. 위출혈이 심하고 간결석, 간관(肝管)이 딱 막혔으므로 의사는 수혈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나의 남동생은 또 외지에서 나를 보러 왔고 나에게 파룬따파가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매섭게 말했다: “당신만 총명한가요? 전세계가 모두 당신보다 총명하지 않고 전문가 학자도 모두 당신보다 총명하지 않은가요?!”

나의 마음이 움직이었다. 나의 남동생은 나더러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썬, 썬, 런 하오(真、善、忍好)” 를 읽으라고 했고 나는 동의했다. 나는 속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썬, 썬, 런 하오(真、



대만



미국



워싱턴



캐나다

● **사회에 복익(福益)하다** 파룬궁은 수련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힘써 도덕 수준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1998년 하반기, 교석등 부분 전 인대 로간부들이 파룬궁에 대해 몇달간의 조사를 진행하고 “파룬궁은 나라에든 인민에든 백가지 리로움이 있을 뿐 한가지 해로움도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아울러 연말에 중앙 정치국에 조사보고를 제출했다.

● **파룬따파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궁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파룬궁의 서적은 30여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 발행하였으며 아울러 파룬따파 사이트 (falundafa.org)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리홍쯔(李洪志) 선생과 파룬따파가 받은 여러 나라 정부의 각종 표창, 지지 의안과 편지는 3000건을 초과했다. “진, 선, 인(真、善、忍)”의 신앙은 세계 각 민족 민중들의 애대와 존경을 받고 있으나 오히려 중국 대륙 한곳에서만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다. ◇

파룬따파는 인간에서 무수한 기적을 창조했다. 파룬공을 수련하여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중의 하나이다. 억만 파룬공 수련자가 파룬공을 수련한 후 대부분 모두 짧은 기간내에 병이 없어 몸이 가벼운 상태에 도달한다.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신기한 일은 매개 수련자의 몸에서 거의 다 체현되고 있다……

생명을 환하게 빛내는 파룬공

명혜 기자/쑤바이(孙柏), 쑤룽(苏蓉) 대만에서 취재 보도

【명혜망】얼굴빛이 불그스름하고 웃음이 온 얼굴에 차고 넘치는 80이 넘는 쑤씨(洵) 이모는 자유자재롭게 행동하며 허리는 똑 바로 펴져 있다. 인생의 로년에 이와 같이 여전히 건강한 것은 사람마다 부럽다고 할만한 일이다. 쑤씨 이모는 말했다: “이것은 모두 파룬공이 베풀어 준 은혜예요.”

■ 수십 년의 병통 시달림

쑤씨 이모는 지금은 순박한 남쪽 대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누구도 그녀가 젊었을 때 죽음에 직면하고 있던 환자임을 보아낼 수 없었다. 몸에 있는 많은 병으로 온몸은 쑤시며 아프고 허약하여 힘이 없어 사처에서 의사를 찾고 불상에 묻는 약탕관이였다. 60세 때 건강 검사에서 두 눈이 엄중한 황반병변(黄斑病变)에 걸린 것을 발견하였는데



80세를 넘은 쑤씨 이모

닥에 섰다. 아내와 아들은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보고 모두 어리둥절했고 나의 아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우리 온 가족은 즐겁기 그지없었다.

그후부터 나의 신체는 매일 매일 변했다. 오늘은 손가락 몇개가 움직일 수 있고, 래일은 발가락 몇개가 움직일 수 있고, 4~5일 지난 후 스스로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었다. 또 일주일이나 지나 아내는 나더러 그녀와 함께 공원에 가서 걷자고 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장난치고 있나요, 이렇게 된 나를 당신이 나더러 공원에 가자고 하는데 내가 공원에까지 갈 수 있겠어요? 돌아오면 나는 역시 층계를 오르지 못하지 않아요.” 아내는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꼭 할 수 있어요.” 그녀의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본 나는 그러면 시험해 보자고 말했다. 우리 둘은 진짜로 층계를 내려와 공원에 도착했고 돌아올 때 나는 정말 스스로 층계를 올랐다.

나는 나날이 좋아졌고 매일 놀라움과 기쁨이 있게 되었다. 석달 후 나는 바로 출근했다. 상황을 아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도 빨리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입원 하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주사를 맞지 않은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으며 모두 이는 파룬따파가 나의 몸에서 나타난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파룬공 수련생으로 될 수 있어 나는 참으로 너무 행운스럽고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구도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전법륜》을 보고 깨달아 얻은 새 삶

문/신생(新生)

【명혜망】 나는 방금 파룬공을 수련한 새 수련생이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江泽民) 한 무리들이 파룬공 박해를 시작할 때 나는 장씨 집단의 거짓말 독해를 아주 깊이 받아 파룬공에 대한 오해가 가득 차 있었

녀의 몸에서 기적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늘 나더러 그녀와 함께 파룬따파를 수련하자고 하였으나 나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현재 병상에 누워 있는 내가 손발이 감각을 잃자 아내는 또 한번 나에게 파룬따파를 수련하라고 권고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나는 시험해 보자는 생각으로 그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아내는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아직도 입원하고 있을래요? 나는 입원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병원을 떠났다.

나의 아들이 나를 업고 아내가 나의 두 발을 들어 겨우 7층의 우리 집에 올라 갔다. 나는 밥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어야 했고 대소변도 아내와 아들 두 사람이 나를 변기에 들어 올려놓아야 했다. 후! 나머지 일은 나는 더욱 입을 열기가 곤란하다.

출원 당일 나의 아내는 곧 mp3을 갖고 와 나더러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듣게 했고 나에게 성심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찌, 샐, 런 하오(真、善、忍好)” 를 읽으라고 하자 나는 곧 읽었다. 그날 저녁 열두시쯤 나는 신체에서 한 물건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왕복 회전하는 것을 느꼈고 닿는 곳마다 조금 시큰시큰하고 저린 느낌이 있었다. 대략 15~16 분 지속되더니 비로서 차츰 사라졌는데 당시 나는 바로 온몸이 많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이튿날 아침 내가 아내에게 이 일을 말하자 아내는 기뻐하며 말했다: “그것은 파룬이 회전하는 것이고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당신에게 신체를 정화해 주는 것이예요!” 말하고 나서 아내는 밥 지으러 갔다.



좀 지나 뜻밖의 기적이 나타났다. 나는 손발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느끼고 바로 스스로 기어 일어나려 시도하면서 두 손으로 벽을 짚고 땅바

대만 창경(長庚)병원 안과 의사는: 이 병은 치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후에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오른쪽 눈은 물건이 희미하게 보이고 시력은 0.1밖에 안되어 눈은 실명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65세 때 그녀는 또 엄중한 좌골신경통에 걸려 매번 발작하기 시작하면 허리 이하 신경이 경련을 이끄는 아픔은 참으로 죽을 지경의 아픔이어서 서 있을 수도 걸을 수도 없어 마음이 불안했다. X레이로 검사하니 이미 신경을 압박했고 수술 후 또 칼자리가 감염되어 하마트면 목숨을 잃을번 했다.

■ 행운스럽게 파룬따파를 수련

원씨 이모는 공원에 가서 신체를 건강히 하는 많은 공법을 배웠으나 모두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당시 원씨 이모는 한가지 소원을 빌었다: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나의 병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공법이 있거나 하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다 배우겠다.”

기적은 나타났다. 3 일 후 리장(里長) 사무실에서 통지를 발표했다 “래일부터 공원에서 무료로 파룬공을 가르치니 흥취가 있으신 분은 자유로 와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부근 주민들은 과연 앞을 다투어 참가했고 단번에 20~30 명이 왔다. 하지만 어떤 이웃은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중공이 파룬공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감히 런마하지 못했고; 어떤 이웃은 중공의 요언 날조 선전의 영향을 받아 파룬공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 원씨 이모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말했다: “산 송장과도 같은 나의 삶은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파룬공을 런마하자 마자 나는 온 몸이 아주 후련한 감이 느껴지기에 나는 시험해 보겠어요.” 이웃과 가족은 더는 그녀의 런공을 가로막지 않았다. 원씨 이모는 몰래 기뻐하며 속으로 이야말로 보배이고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어떤 이상한 눈빛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렇게 런마하여 지금까지 이미 십여년이 되었다.

■ 원씨 이모가 경험한 많은 기적

런공점 보도원은 아주 참을성이 있게 원씨 이모에게 공법을 가르쳤다. 방금 제5조 공법을 배워 런마할 때였다. 어느 날 원씨 이모는 갑자기 두

손이 굳어버린 것 같더니 한 가닥의 따스한 강대한 에너지에 포위되었고 뿐만아니라 온몸이 후련했다. 또 몇일이 지나 런공할 때 그녀의 귀가에서 여러번 아주 똑똑하고 온화한 소리를 들었다: “당신은 꼭 견지해 나가야 해요.” 하지만 눈을 뜨고 보니 옆에는 결코 사람이 없었다. 이 격려의 소리를 쉰씨 이모는 지금까지 가슴에 아로새기고 잊을 수 없었다.

일거(日据) 전란시대에 자란 쉰씨 이모는 책을 읽지 못했기에 문맹이며 글을 알지 못하며 국어(보통말)도 알아 듣지 못했다. 파룬궁을 수련하려면 파룬궁 저작을 학습해야 하는데 처음 《전법륜(转法轮)》을 배울 때 보도원과 기타 파룬궁 수련생은 아주 참을성이 있게 한 글자 한 글자씩 그녀에게 가르쳤는데 방금 습득한 한두 글자를 그녀는 즉시 다 잊어버렸다. 쉰씨 이모는 내심으로 사부님에게 말했다, “사부님! 나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찌하면 이렇게 두꺼운 천서(天书)를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쉰씨 이모가 《전법륜(转法轮)》을 펼쳤을 때, 말하자면 이상하게도 글자는 온통 금빛이고 글자마다 모두 금빛이었다. 다시 다음 페이지를 펼쳐도 역시 금빛 글자이자 쉰씨 이모는 아주 놀랐다! 이로부터 그녀의 글자 배움에 신속한 진보가 있었다. 현재 쉰씨 이모는 《전법륜(转法轮)》의 글자를 모두 알아보며 그녀는 매일 아주 긴 시간 법을 학습하고 읽을 수록 더 읽기 좋아했다.

쉰씨 이모는 파룬궁을 배워 런마한지 반년도 안되는 시간에 병통이 사라지고 눈이 밝아졌으며 이로부터 활력이 넘치고 정력이 왕성했다. 어머니의 변화에 놀란 아들 딸들은 모두 칭찬이 자자하며 말했다: “파룬궁은 아주 신기해요.” 현재 큰 딸도 파룬따파의 수련에 들어섰다.

■ 관광지에서 진상 전단지를 나누어 주다

지금까지 12 년을 수련해온 쉰씨 이모는 신체도 하루하루 활기분하고 걸음은 종래로 없었던 가벼움이며 뿐만 아니라 걸음이 나는듯 하였다. 령감과 자녀들은 그녀 신체상의 거대한 변화를 보고 모두 그녀의 수련을 매우 지지했다. 많은 대륙 유람객들이 관광지에 방문하러 온다는 것을 알게된 쉰씨 이모는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진상 전시판을 들어 유람객들더러 “파룬따파 하오(法轮大法好)’ 를 알게 하고 싶었다. 령감은 두말

없이 동의했고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그녀를 고속철역까지 실어가 차를 타고 관광지에 가서 진상을 이야기 하게 했으며 몇년래 종래로 멈추지 않았다. 무릇 런공하며 법을 널리 전하고, 진상을 이야기하는 등 활동을 쉰씨 이모는 모두 빠뜨리지 않았다. ◇



풍경구에서 진상을 말하는 쉰씨 이모

석달에 완쾌된 엄중한 뇌혈전

문/산동 파룬궁 수련생

【명혜망】 이것은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다.

2009년 6월의 어느날 저녁 나와 친구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다가 자그마한 일 때문에 친구와 다투기 시작했다. 당시 아주 격동된 나는 갑자기 온몸이 마비되면서 손발이 감각을 잃고 땅바닥에 벌렁 쓰러져 움직일 수 없었다.

친구는 전화로 120 구급차를 불러와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다들 모두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줄 알고 모두 주의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의사가 나에게 뇌혈전에 걸렸다는 진단을 내린 후 또 상당히 엄중하다고 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당시 나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왜냐하면 많은 뇌혈전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나온 것을 나는 하나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생각했다: 이번엔 끝장이야, 나는 겨우 50 몇살인데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아내는 파룬궁 수련생이며 이전에 그녀는 온몸이 병이 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로부터 10 여년간 더는 약 한 알도 먹지 않고 질병은 그